

美 미네소타서 이민단속요원 총격에 30대女 사망

국토안보부 “테러용의자에 방어사격”

미니아폴리스 시장 “무모한 무력사용”

트럼프 “좌파 폭력서 법집행관 보호를”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미니아폴리스의 ICE 요원들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한 명이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나이를 제외한 숨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아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여성이 머리에 총격을 당했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시행된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발생 후 낸 성명에서 “ICE 요원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기 시작했고, 이들 과격 폭도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했다”라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에 대해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SN



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하교 시간대에 루즈벨트 고등학교 인근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S)에 올린 글에서 방금 사건 영상을 시청했다면서 “보기에 참혹한 장면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었고,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해당 요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 그녀를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첨부된 영상을 보면 그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조사

중이지만, 이런 사건의 이유는 급진 좌파가 매일 우리의 법 집행관과 ICE 요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단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법 집행관들을 이 급진 좌파 폭력·중요 운동으로부터 지지하고 보호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미니아폴리스 시장과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연방당국 발표와 상반되는 설명을 내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컵 프레이 미니아폴리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한 뒤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 시장은 또 “미니아폴리스에서 꺼지라.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원치 않는다”며 ICE를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오하라 경찰국장도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 또는 활동의 표적이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며 “중년의 백인인 해당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ICE 요원이 나타난 현장의 길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설계된 통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힌 뒤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분노를 느낀다. 나도 화가 난다”면서도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다.

윌즈 주지사는 또 “우리는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와 크리스티 뉴(국토안보부 장관),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연합뉴스

덴마크 “美 그린란드 공격 땀 반격 가능”

“그동안 美요구 모두 수용”

‘안보 이유’ 병합 주장 반박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며 병합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도 군사적 맞대응까지 거론되는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덴마크 일간 벨링스케는 덴마크군이 공격받았을 때 ‘선반격 후보고’하도록 한 1952년 교전수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덴마크 국방부와 방위사령부가 확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덴마크의 1952년 교전 수칙은 “공격받은 부대는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 사령관이 선전포고나 교전 상황을 알지 못하

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그린란드 주둔 덴마크군 역시 미군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 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벨링스케는 전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그동안 그린란드에서 활동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덴마크가 모두 수용했다”며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덴마크와 미국은 1951년 방위조약 체결 이후 적절한 틀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도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51년 방위조약은 미군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개정됐다.

라스무센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의도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지만, 미국 내 정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미국은 덴마크 영토의 일부를 병합할 권리가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초가공 식품 피하고 붉은고기·유제품 많이 드세요”

美정부 새 식단 지침에 반응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가당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은 피하고, 붉은 고기와 전지방(full-fat)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내용의 새 식단 가이드라인을 7일(현지시간) 내놨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2025-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발표했다.

케네디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라며 “새 지침이 식문화를 혁신하고 미국인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침은 매 끼니에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며, 체중 1kg당 하루 12-16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또 기호에 따라 단백질에 소금, 향신료, 허브를 첨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권장했던 일일 단백질 섭취량 0.8g의 최대 두배 분량이다.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을 권장던 이전 지침과 달리, 전지방 유제품 섭취를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지는 메시지는 환영할만하지만, 붉은고기와 고지방 유제품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마리언 네슬레 뉴욕대 영양학 명예교수는 AFP에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며, 이념적이고,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스탠퍼드대 영양 전문가 크리스토퍼 가드너는 미 공영방송 NPR에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을 맨 위에 배치해 우선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제시한 새 식품 피라미드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는 수십년간 축적된 증거와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